

종단 최고 법계로 전등 법통을 잇다

■ 6인 대중사, 어떤 스님들인가

조계종은 지난 7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종단 최고의 법계인 대중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스님)는 지난 12월1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조계종 전체 종정예하는 원로의원인 세민, 정련, 지성, 대원, 성파, 성우스님에게 대중사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다. 평생 수행과 포교 어느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들의 행장을 소개한다.

정리=허정철 기자 hjo@ibulgyo.com



진제 종정예하는 지난 7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신년하례를 마친 후 세민스님 등 6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대중사 법계증과 대중사 휘장이 부착된 25조 가사를 내리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자(拂子)'를 봉정하며 대중사 품수를 축하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진제 종정예하 법어

枯木龍吟眞見道
惺惺識盡眼初明
喜識盡時消息盡
當人那邊濁中清
고목 속에서 용이 소리를 냄은
참으로 도를 봄이요, 백골 속에 식이 다해야사 눈이 처음 밝음이라.
기쁜 식이 다한 때에 소식도 또한 다하거늘 대중사여, 어느 곳이 탁한 가운데 맑음인고.

여차(於此)에 명득(明得)하야사 제불제조(諸佛諸祖)로 동참(同參)하여 천상인간(天上人間)에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리라. 모든 사부대중(四部大衆)은 대중사임(大宗師任)들을 여불(如佛)로 잘 받들지이다.

필경일구(畢竟一句)는 작마생(作麼生)고.

敲出鳳凰五色髓
擊碎驪龍明月珠
봉황이 오색의 골수를 뿜어넘이요, 여룡의 명월주를 부숴버림이로다.



세민스님

‘염불 1인자’ 정평
원심원사 복원 매진

지관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세민스님은 1956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마치고 일본 경도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동국대 선학과 강사, 조계사, 경국사, 선암사 주지, 해인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2012년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염불 1인자로 정평이 난 세민스님은 해인사 주지 시절 팔만대장경의 홍보와 현대적 계승을 목적으로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사업을 펼쳤다.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경기도 연천 원심원사 복원에도 매진했다. 조계사 주지 재직 시 인근의 삼오모텔을 매입해 성역화불사에 기여했다. 또 2009년 경내에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사적비를 새로 조성해 한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정련스님

유치원 사회복지 상징
동국대 제2건학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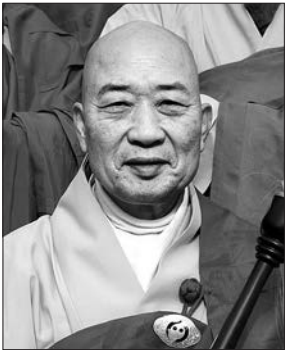
헤수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련스님은 1958년 선암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이사,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된 스님은 현재 내원정사 주지, 내원정사 유치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내원 대표이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천막법당으로 시작한 내원정사를 부산 대표 사찰로 발전시켰다. 불교계 최대 규모의 재활의료시설인 거제도 마하병원을 운영하며 불교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09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으로 선출돼 제2건학을 원력으로 세웠다. 경기도 일산캠퍼스 건립, 건학 100주년 기념관 완공, 약학대학 유치 성공과 바이오메디융합 캠퍼스 개교, 동국대 국제선센터 개원 등의 공적을 남겼다.



지성스님

조용한 수행 지역포교
‘함께 하는 세상’ 창립

헤진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지성스님은 1959년 동화사에서 인곡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6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금강선원 등 제방선원에 서정했다. 제7, 8, 9, 10대 중앙종회의원,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대전사 주지, 용연사 주지, 조심호계위원, 재심호계위원, 법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된 스님은 현재 나눔의 자비공동체 ‘함께하는세상’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스님을 찾아와 후원을 부탁하던 몽골 학생들과의 인연으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함께하는 세상’을 창립했다. 몽골과 미얀마 스리랑카 등 이웃불교국 노동자들을 후원하고 있다. 동화사 주지 시절에는 담선(談禪) 대법회를 개최하며 간화선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이바지했다.



대원스님

근현대 선지식 회상
간화선 대중화 기여

대원스님은 상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고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1962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5년 의정부 쌍용사 전강스님 회상에서 수선안거한 이래 1986년까지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등 전국 선원에서 효봉, 금오, 고암, 경봉, 성철스님 등 당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았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한 스님은 2013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됐으며 현재 고암문도회 회주와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을 맡고 있다. 14세에 출가해 지금까지 참선수행에 매진해 온 대원스님은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출가자를 위한 오등선원을 열어 남자들이 제정했다. 오등선원은 전국 선방에서 유일하게 한 철 100일 동안 옹매정진하는 곳이다. 2001년에는 재가자를 위한 오등시민선방을 개원하고 참선 대중화에 기여했다.



성파스님

16만 도자대장경 조성
문화포교 이끄는 원로

성파스님은 월하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1년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총무원 사회부장교 교무부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제5, 8, 9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13년 원로의원에 선출된 스님은 현재 대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다. 오랫동안 통도사 서운암에서 주석해온 성파스님은 문화포교에 일조했다. 시조문학 발전을 위해 지난 1984년 성파시조문학상을 제정해 최근까지 시조 시인들을 격려해 왔다. 또 지난 1985년부터 영남시조 백일장을 개최해온 스님은 이를 확대해 전국대회로 운영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흙으로 구운 3000불을 봉안했고, 10년에 걸쳐 16만 도자대장경 불사를 회향했다. 이 공로를 인정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우스님

시조시인 불교TV 회장
문학 방송포교 큰 역할

성우스님은 고승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3년 파계사에서 성민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7년 해인사에서 성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불교전통강원을 졸업했으며, 해인총림 율원을 수료했다. 제11, 12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파계사 주지, 흥광 흥법원 원장, 대한불교신문사 주간, 월간 현대불교 발행인, 도서출판 산방과 도서출판 토방 대표를 역임했다. 2013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된 스님은 현재 계단위원회 위원,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성우스님은 문학과 방송포교에 남다른 역할을 해왔다. 1970년 백일장을 개최해온 스님은 이를 확대해 전국대회로 운영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흙으로 구운 3000불을 봉안했고, 10년에 걸쳐 16만 도자대장경 불사를 회향했다. 이 공로를 인정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허정철 기자

■ 대중사 법계와 역사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서 종단 위계 서열의 기본인 대중사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함은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승으로 존경받는 승가의 지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중사의 지위에 오르는 스님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 존경받을 만한 선지식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단 법계법에 따르면 대중사 법계는 승랍 40년 이상 종사 법계수지자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품서하게 된다. 대중사 법계는 법계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종회의 동의, 원로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종정예하가 거행하게 된다. 대중사 법계법에 근거한 품서식은 지난 2004년, 2008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특히 2004년 5월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석주, 지중, 성수, 도견, 보성, 원명, 벽암, 정전, 천운, 지관, 종산, 이두, 활안, 동춘, 지혜, 초우, 고산, 진제, 혜정, 밀운스님 등 역대 최다인 원로 스님 20명에게 법계가 품서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쌍 계 총 림 雙溪寺

육조혜능대사의 정상이 모셔진 禪의 본郷이자, 우리나라 녹차의 시배지이며,

해동법패가 시작된 禪·茶·音의 성지,

제13교구본사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율학승가대학원과 승가대학의 학인스님들을 모집합니다.

2014학년
www.ssanggyesa.net

쌍계총림 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

- **지원자격** 비구스님 (2014년 구족계 수계예정자 포함)
- **모집인원** 0명
- **접수마감** 불기2558(2014)년 3월 15일 까지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면접일자** 2014년 3월15일
- **제출서류**
 - 1. 입방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 2. 승려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통
 - 3. 수행이력서 1통
 -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1통
 - 5. 건강진단서(보건소제외) 1통
 - 6. 증명사진(반명합판) 3장
- **문의처** 055)883-1901 쌍계사(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 쌍계총림 율학승가대학원 원장 원 허

쌍계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사미계 수지자(2014년 봄 사미계 수계자 입방가능)
- **모집대상** 치문반(1학년) 00명 / 사집반(2학년) 00명 / 사교반(3학년) 0명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 2. 주민등록증 사본 (양면복사) 1통
 - 3. 수계증명서, 행자교육필증 사본 각 1통
 - 4. 증명사진 4매※편입생은 수료증명서 지참 필.
- **원서교부** 쌍계사 중무소 및 쌍계사 홈페이지
- **접수마감** 불기2558(2014)년 3월 31일 까지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갈마
- **준비물** 만의가사, 장삼, 승려증
- **문의** 강원 055)883-1905, 중무소 055)883-1901
- **기타** 전학년 정교재 무상지원, 전산실 완비, 의료비 지원, 미국 원어민강사 상주 매일 아침 영어회화 강좌

☎ 쌍계사승가대학 학장 월 호